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A LUSH AND SEETHING HELL

가제 : 지옥보다 뜨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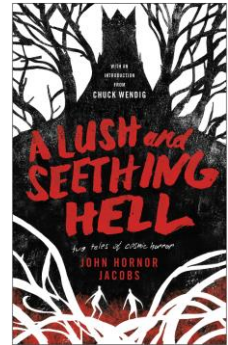
저자 : John Jacobs

출판사: Harper Voyager

발행일: 2019년 10월 8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 “초자연적인 이야기 전문가인 작가는 비밀과 악마,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존재하는 어둡고 구불구불한 길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 VOYA 매거진
- * “러브크래프트와 보르헤스의 둘연변이 자손이 비밀을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 작가는 진정한 공포는 머나먼 어느 장소가 아니라 어떤 글 한 줄, 노래 한 가락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Grand Dark』의 작가 리처드 캐드리

데뷔 소설 『Southern Gods』가 브램 스토크 상 결승에 오르며 평단의 호평을 받은 호러 장르의 대가가 두 편의 오싹한 중편이 담긴 신작으로 돌아왔다. 폭력과 타락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탐구한 두 소설에서 작가는 특유의 깊고 풍성한 상상력으로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악이 싹을 틔울 때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첫 번째 소설 <하늘을 꿈꾼 바다>에는 정권에 강력히 대항하다 추방당한 한 멕시코 시인과 그와 우연히 오묘한 우정을 나누게 된 외눈박이 대학 교수가 등장한다. 시와 글쓰기를 가르치는 이사벨은 동네 사람들이 다들 ‘안대 낀 남자’라고 부르는 독특한 차림새의 중년 남성이 단골 카페에서 합석을 요청할 때만 해도 그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큰 불쾌감 없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친구도 연인도 아닌 친분을 쌓아가던 어느 날,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발견한 운전면허증에서 라파엘 아벤다뇨라는 그의 실명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가 나쁜 의미로 남미 지역에서 누구보다 ‘유명한’ 시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엄청나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남사스러운 섹스를 즐기며 프랑스, 인도네시아의 창녀들에 관한 시를 쓰고 마리화나와 코카인을 달고 살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왜곡된 남성상을 추앙하는 그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사진에는 말쑥한 차림에 예의 바른 인사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시를 혹독하게 평가한 비평가들을 폭행해서 고소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난봉꾼이었다. 라파엘은 어느 칵테일 파티에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깨닫고는 분을 못 이겨 옆에 있던 과도로 아내를 찔렀고,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해 두 번 다시 딸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오르다스 대통령과 멕시코 정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은 후 영

구 추방된 그는 이사벨의 나라인 말라가에 눌러 살기 시작했다. 이사벨은 여성 혐오가 짙게 배인 그의 글을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언급하거나 자료로 활용한 적이 없었다. 그런 그와 이렇게 자주 만나 한 테이بل에 마주 보고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다니, 참 기막힌 일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라파엘은 멕시코에서 전처가 보낸 편지를 한 통 받았으며 딸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하러 가봐야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사벨에게 자신의 아파트 열쇠를 건네며 가끔 들러 별일 없는지 봐달라고 부탁한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러겠다고 약속한 이사벨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간 라파엘의 널찍한 아파트에서 뜻밖의 자료를 발견한다. 그가 ‘너무 많은 것을 봐서 내 손으로 파버렸다’고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그의 한 쪽 눈이 어디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관한 진실, 파시스트 정권이 나라를 점령하기 전과 권력을 휘어잡은 기간, 그리고 이후의 삶, 그가 번역해야 했던 어떤 책에 관한 글을 모두 읽은 이사벨은 라파엘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는 강한 열망을 느낀다.

두 번째 소설 <슬픔에 사로잡힌 마음>은 의회 도서관에서 민속 음악 관련 자료를 담당하는 크롬웰이라는 사서가 어느 유명한 수집가가 남긴 유품을 조사하러 동료와 출장을 떠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가슴 깊이 사랑한 아내와 아들을 일찍 잃고 살아갈 의욕마저 사라졌던 크롬웰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흥미로운 일거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한다. 당시 의회 도서관의 의뢰로 미국 최남동부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민속 음악을 조사, 수집했던 할란 파커가 은밀하게 보관해둔 수집품을 유족이 기증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할란 파커는 그 연구 중에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일을 겪었고, 그 일로 인해 의뢰받은 연구 과제까지 전부 포기한 채 집에 틀어박혀 죽을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남부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그저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것도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었다.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동료 해티와 함께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한 크롬웰은 파커가 문제의 연구 중 현장에서 녹음했던 음악들, 그리고 그의 일기장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 ‘비밀의 방’을 발견한다. 그가 남긴 기록과 낡은 음악에 점점 빠져든 크롬웰은 파커가 남부 시골 지역에서 보고 들은 기이한 일들이 지옥을 목격한 것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가 듣고 녹음한 음악은 마치 악마가 직접 만든 노래가 아닐까라는 크롬웰의 확신은 섬뜩한 결말로 이어진다.

두 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역사로 묻힌 어떤 사실을 발견하고 간접 경험하게 되면서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상대가 무언가를 잃고 철저히 망가져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사벨이 만난 라파엘이 쓰고 번역한 글에는 그를 억압한 정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악하고 끔찍한 현실을 향한 저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크롬웰이 찾아낸 자료 속에서 발견한 실종되었던 할란 파커도 마찬가지다. 괴물처럼 덮친 무거운 진실 속에서 길을 잃고 무너진 사람들, 어떻게든 빠져나올 길을 찾으려 발버둥치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이들이 잃은 것은 무엇이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 작가는 전혀 다른 배경과 인물들이 사로잡힌 비극과 어찌다 맞닥뜨린 끔찍한 현실, 이후 일어난 변화를 흡입력 있게 그리면서 이들이 희생당한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치른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독창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을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존 호너 제이콥스(John Hornor Jacobs)의 데뷔 소설 『Southern Gods』는 브랜 스토크 데뷔 소설 상 결승에 올랐다. 그 밖에 YA 시리즈 『The Incarcerado』 3부작과 데이비드 켄멜 상 결승에 오른 판타지 시리즈 『Fisk & Shoe』 등을 썼다.

제목 : PRETTY AS A PICTURE

가제 : 프레임 밖의 눈

저자 : Elizabeth Little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20년 2월 2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스릴러



- ★ 브라질, 체코,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총 6개 국가 판권 계약
- ★ 출간 후 1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DEAR DAUGHTER의 저자가 쓴 신작 미스터리 소설
- ★ “반전 있는 스토리, 영화광들에 관한 재미 있는 이야기, 한 방이 있는 멋진 여주인공까지, 모든 것이 갖추어진 뷔페 같은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unburn』의 작가 로라 립먼

사진이라는 제한된 프레임 속에 담긴 것들에서 남들은 잘 보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찾아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마리사는 이상한 일을 맡게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기밀 서약을 해야 하고 같이 일을 하자면서 무슨 일인지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10여 년간 LA 영화 판에서 꽤 유능한 편집자로 인정받은 마리사는 이런 제안을 받은 것이 처음이었지만 어쨌든 시작해보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안톤 리스 감독의 새 영화 작업에 발을 들인 마리사는 촬영지인 델라웨어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키크아웃 섬으로 떠난다. 대본도 주지 않고 그날그날 촬영한 분량을 받아 편집실에서 이야기로 만들어내라는 감독의 요상한 작업 방식을 하는 수 없이 따라가던 마리사는 시간이 갈수록 영화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안톤 리스는 1994년 여름에 그 섬에서 일어난 실제 살인 사건을 영화로 만들고 있었다. 마치 당시의 사건을 현실로 재현해내기라도 할 심산인지 집착에 가까운 엄격한 기준으로 배우들의 의상, 머리 모양, 분장은 물론 구도, 심지어 날씨까지 자신이 원하는대로 연출 하려는 감독을 보며, 마리사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그 사건을 직접 알아내기로 마음먹는다. 25년 전 키크아웃 섬의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된 어느 부유한 집안의 딸 케이틀린의 비극적인 사건부터 추적해보기로 한 마리사는 누군가가 영화 제작을 막으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된다. 마리사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케이틀린 사건을 세상에 알리려는 사람과 그것을 막으려는 자의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배우들이 불안에 떨고 이미 절반 이상의 스텝 또한 촬영 도중 그만두고 달아나듯 떠났으며 남은 스텝들마저도 하나 같이 그만 두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체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마리사는 남다른 시각, 예리한 관찰력으로 누구도 보지 못한 진실을 꼬집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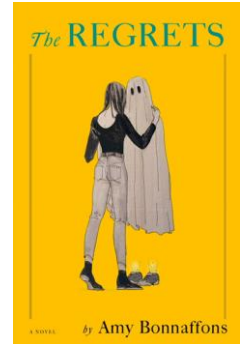
케이틀린은 어릴 때부터 여름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러 키크아웃 섬을 방문했는데, 19살이 되던 해 바로 그 섬의 해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비극이 일어난 그 해, 케이틀린은 아름다운 외모와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그 섬에 살던 또래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중 한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고 깊은 관계에 빠져 밤낮으로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섬에 살았던 주민들

모두가 다 알 정도였다. 누구나 사랑스러운 케이틀린을 좋아했고 함께 어울리고 싶어했기에 새벽 녘 싸늘한 시신으로 바닷가에서 발견됐을 때 가족들은 물론 섬 주민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케이틀린은 누구의 원한을 살 만한 말이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소녀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섬의 보트 창소에서 일하던 빌리였다. 빌리는 케이틀린을 흠모하던 여러 남성들 중 한 명이었는데, 최근 들어 케이틀린에게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살해 추정 시각에 특별한 알리바이가 없었던 빌리를 의심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 외에도 남자친구 톰, 또, 배우 지망생이던 케이틀린과 가까이 지냈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케이틀린을 본 나이 많은 여배우 바이올렛, 케이틀린의 가족들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모두 살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몇 주 뒤 OJ 심슨의 아내가 연인과 살해당하면서 온 나라의 관심이 풋볼 스타가 살인자이나 아니냐에 쏠리는 바람에 케이틀린의 사건은 모두에게 잊히게 된다. 마리사는 케이틀린의 죽음이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온 사람들과 그대로 과거에 묻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톤 리스 감독의 영화를 중심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직감한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영화 대본을 입수한 케이틀린은 장면마다 빼곡하게 써 있는 요구 사항과 촬영 조건을 보고 이 대본은 분명 케이틀린이 목숨을 잃었던 순간을 직접 본 사람이 쓴 것이라 확신한다. 감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때마침 자신들이 사는 섬에서 오래 전 일어난 미해결 살인 사건에 큰 호기심을 갖고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수사’를 벌여온 두 명의 섬 소녀들이 나타나 마리사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마리사는 안톤 리스 감독의 비밀을 알아낸다. 그는 25년 전 케이틀린을 사랑했던 섬의 남성들 중 한 명이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빌리가 풀려난 후, 케이틀린의 남자친구였던 톰은 친구들과 함께 빌리를 수시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며 자백할 것을 종용했는데 그 무리 속에는 안톤 리스 감독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리사는 치밀하게 짜인 대본과 병적인 집착으로 한 장면, 한 장면을 만들어낸 감독의 합작품을 처음부터 뜯어보기 시작한다. 그것만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 괴상한 영화를 만들어 케이틀린 사건을 알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마리사가 모든 진실을 알아내기 전, 케이틀린 역을 맡았던 여배우가 25년전 케이틀린이 죽은 바로 그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촬영장은 순식간에 살해 현장으로 바뀐다.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촬영 영상, 장면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야만 한다. 오로지 마리사의 독백 같은 이야기로만 흘러가면서 긴장감이 숨 막힐 정도로 고조되는 순간을 절묘하게 묘사하며 놀라운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영리하고 스타일리시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리틀(Elizabeth Little)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LA 타임스 베스트셀러 『DEAR DAUGHTER』, 논픽션 『BITING THE WAX TADPOLE』, 『TRIP OF THE TONGUE』를 썼다. 소설 데뷔작이었던 『DEAR DAUGHTER』로 스트랜드 비평가 상을 수상하고 맥캐вити 최우수 미스터리 소설 상, 배리 상, CWA 존 크리스 대거 상 후보에 올랐다.

제목 : THE REGRETS
가제 : 죽음보다 낯선
저자 : Amy Bonnaffons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20년 2월 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오르가즘이 프랑스어 원어대로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한다면, 섹스와 죽음의 관계를 이 작가만큼 잘 묘사하는 사람은 없다.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절제된 철학적 시선으로 탐색하는 러브 스토리이자 귀신 이야기” - 『Self-Portrait with Boy』의 저자 레이첼 라이언

브루클린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한 남자가 나타난다. 밝은 금빛 머리카락에 슬픈 눈으로 정류장 의자에 앉아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는 그를, 레이첼은 언젠가부터 주시하기 시작한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레이첼은 그렇게 앉아 있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그에게 말을 걸 용기를 겨우 끌어낸다. 서로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은 착각이 아니었다. 토머스라는 이름을 가진 버스 정류장의 청년은 생각보다 훨씬 다정하고, 유머 감각도 넘치고, 똑똑하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어서 레이첼의 마음을 더 깊이 빼앗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토머스가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고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는 것, 함께 있던 친구도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까지가 토머스가 떠올릴 수 있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뼈가 제자리를 완전히 벗어나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이 온 몸을 휩쓸었다는 감각도 생생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꿈처럼 나타났다. 천사의 손짓에 몸이 가볍게 들어올려지고 아래를 내려다볼 틈도, 정신도 없이 그대로 공중으로 함께 올라가 천사의 숨결을 산소 호흡기인 것 마냥 들이킨 그 때, 토머스와 마주한 천사는 작은 알맹이를 토마스의 입 안에 넣어주며 삼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정체불명의 알맹이를 삼킨 토머스는 뜻밖의 위기에 처한다. 몸이 알맹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격렬한 기침과 함께 천사가 준 알맹이가 도로 튀어나오자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천사도, 토머스도 직감한다.

학창시절의 교장실을 떠올리게 하는 사무실 같은 공간으로 이끌려간 토머스는 정부 기관의 고위직 같은 느낌의 점잖고 단정하면서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남자로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천상계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일종의 ‘오류’라는 설명을 듣는다. 정상대로라면 모든 사람은 생의 마지막 날, 정해진 순간에 정해진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고 그 즉시 영혼을 천상계로 데려오는 ‘에이전트’, 즉 천사와 만난다. 여기까지는 토머스도 정상적으로 경험했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에이전트가 건넨 알약을 꿀꺽 삼키면 충격, 욕망, 공포, 경외의 감정이 한꺼번에 치솟으면

서 카타르시스가 시작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지상과 영원히 작별할 수 있다. 그런데 토머스는 이 필수 단계를 거치지 못한 것이다. 그 원인은 10년 전, 그러니까 토머스가 아홉 살 때 일어난 천상계의 1차 오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천사는 죽음이 찾아온 순간에만 봐야 하는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아홉 살 토머스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다. 하고 많은 천사들 중에 그 때 토머스가 만났던 천사가 하필 10년 뒤 오토바이 사고 현장에 또 나타났고, 그녀가 건넨 약은 원래 발휘해야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그 날 만난 천상계의 사람이 전한 설명이었다. 그가 밝힌 해결 방법은 하나, 꼬여버린 토머스의 죽음을 천상계가 다 정리할 때까지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 대기하라는 것이다. 살아 있지만 살아 있지 않는 상태, 죽었지만 살아 있을 때의 몸을 가진 존재가 되어 약 3개월간 지상의 사람들과 지내라는 설명에 토머스는 당황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다시 깨어보니, 이미 낯선 아파트에 누워 있었고 천상계가 남긴 주의사항과 지켜야 할 규칙이 가득 적힌 책자, 그리고 돈 뭉치가 놓여 있었다.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영혼의 중간 상태로 지내는 것은 주의사항에 묘사된 것보다 훨씬 이상하고 낯설었다. 겉모습은 사고 나기 전 모습과 비슷하지만 뼈도, 근육도 다 따로 노는 것처럼 어딘가 험거운 느낌이 들었다. 감각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감각도 선명하지 않을 때도 있는가 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감각이 찾아와 괴로울 때도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건 정신이었다. 감정과 정신, 육체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느낌, 그래서 내내 붕 떠 있는 기분으로 온전히 잠들지도, 깨어 있지도 못한 채로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누워 있을 수만도 없었다. 토머스에게는 90일간 지상에서 대기하는 동안 전 날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 꼼꼼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우편함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토머스는 몇 주 동안은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일어나 매일 같은 카페에 가서 같은 메뉴로 아침 식사를 하고 버스에 올라 정해진 우편함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레이첼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토머스의 이 기묘한 3개월은 조용히 흘러갔을 것이다. 임시로 지상에 머무르는 영혼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 가령 약이나 알코올, 성적 접촉 등 중에서 사랑이야말로 정신과 감정, 신체에 강렬한 자극을 주는 요소를 모두 가진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 규칙을 어길 시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라는 천상계의 경고, 그리고 그 '후회'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세세한 지침을 레이첼과 만나면서 모두 여기게 된 토머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존재를 통해 사랑과 현실을 우아하게,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하게 그림처럼 그려낸 작가의 상상력이 계속해서 마음을 사로 잡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에이미 보나폰스(Amy Bonnaffons)는 뉴욕 대학교에서 예술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조지아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저서로는 단편 모음집 『The Wrong Heaven』이 있다.

제목 : A PRAYER FOR TRAVELERS

가제 : 여행자를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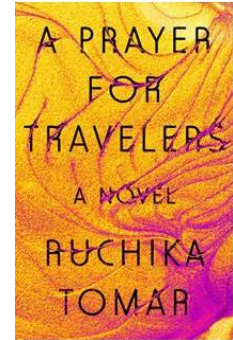
저자 : Ruchika Tomar

출판사: Riverhead Books

발행일: 2019년 7월 9일

분량 : 351 페이지

장르 : 성장 소설



★ 타임 지, LA 타임스 선정 ‘올해 7월 읽어야 할 소설’ / 센터 포 픽션 데뷔소설상 후보

★ “모든 것이 갖춰진 데뷔 소설!” – 「코스모폴리탄」

★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실종자와 잃어버린 영혼을 생생하게 그린 소설. 작가는 벽 너머, 모퉁이 뒤에,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진 핵심을 찾아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 – 『Leaving the Sea』의 작가 벤 마커스

태양이 이글거리는 네바다 사막, 캘리포니아 주와 맞닿은 외진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평생을 단둘이 살아온 케일에게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다. 밤이면 숲에서 슬그머니 기어 나온 코요테가 뒷마당을 어슬렁대며 사람들 틈에 사는 개들을 노리고, 대형 트럭을 몰고 온 뜨내기 트럭 운전자들이 정신을 잃게 만들어줄 약과 여자를 찾아 헤매는 이 칙칙한 마을에서 케일은 17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인간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다.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된 자신을 병원에 남겨두고 사라져버린 엄마 대신 부모님과 친구의 역할을 모두 다 해준 외할아버지와 케일 사이에는 혈연 관계를 초월한 특별하고 끈끈한 애착 관계가 생겨났고 케일은 어릴 때부터 그 관계를 잃어선 안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고 할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상대적으로 할아버지와 관계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을 느낀 케일은 의도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멀리했다. 그러니 난생 처음 ‘친구’가 된 페니에게 집착에 가까운 유대감을 느낀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케일의 전부이다시피 한 두 사람이 한꺼번에 케일의 곁에서 사라지려고 하면서 케일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오래 전 아내를 잃고 딸과는 몇 년째 연락이 두절된 채로 살던 케일의 할아버지 램은 산모가 아이를 놓고 사라졌다는 병원의 연락을 받고 세 시간을 내리 운전해서 낯선 산부인과 병동에 도착한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손녀가 어떤 인종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램은 꼬물대는 아기에게서 오랫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던 딸의 모습을 발견한다. 혼자인 생활에 익숙했던 노인에게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손녀와 할아버지는 한 팀이 되어 서로를 지탱하는 가장 탄탄한 울타리가 된다. 케일은 사람보다 책을 좋아하는 말수 적은 소녀였다. 반면에 페니는 모든 면에서 케일과 정반대인 아이였다. 워낙 좁은 마을이라 학창시절부터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전교생 중에서도 손꼽히는 미모로 유명했던 페니의 곁에는 늘 찰싹 붙어 다니는 친구들로 넘쳤다. 인기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 페니 역시 그 시절에는 친구 하나 없고 존재감은

더더욱 없는 케일 같은 아이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래서 졸업 후, 식당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 했을 때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페니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에 놀란 것도 우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우연히 재회한 페니와 케일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페니는 책과 한정된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작은 세계에 갇혀 살아온 케일을 현실 세계로 꺼내준다. 할아버지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그럼에도 부모의 부재는 케일에게는 감추고 싶은 상처였다. 어떨게든 눈에 띄지 않고 안전한 길로만 도망다니듯 살아온 케일과 달리 페니의 생활은 정반대였다. 그녀는 돈이 필요하면 아무 남자와도 잠을 자고 약을 찾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건네며, 그렇게 비교적 쉽게 버는 돈에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함과 무모함을 넘나드는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눈치 빠른 페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조차 모르는 케일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엄마처럼 세상 밖으로 어떻게 나오면 되는지 알려주고, 케일은 또 다른 삶, 더 넓고 새로운 것들로 넘쳐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 살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페니가 아무 연락도 없이 식당에 결근한 날, 케일은 페니의 인생이 훨씬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케일은 서둘러 페니가 집으로 삼던 트레일러로 달려갔지만 알 수 없는 흔적만 남아 있었다. 냉장고 문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녀는 사라졌지만 페니가 열심히 모으던 비상금도, 휴대전화도 가져가지 않은 것을 본 케일은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는다. 평소 페니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 학창시절부터 붙어 다니던 아이들을 수소문해서 행방을 찾던 케일은 사막 한 가운데서 연기처럼 사라진 페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찾으려는 사람이 자신뿐임을 깨닫는다. 그러던 중 본격적으로 수색이 진행된 직후 케일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당하기 힘든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맞닥뜨린 케일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안전한 길 대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페니를 찾아 마약과 술, 도박에 절어 사는 인간들이 득시글대는 곳으로 뛰어든 케일의 앞에 위험천만한 요구와 댓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작가는 소설의 첫 장을 '31장'으로 정하고 이후로도 무작위로 장을 배치하여 견디기 힘든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을 구성적으로도 독특하게 표현한다. 어딜가나 도사리고 있는 각종 폭력에 노출된 채 살아야 했던 사람들, 사랑과 슬픔, 트라우마에 짓눌린 이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묘사한 인상적인 데뷔작이다.

<저자 소개>

루치카 토마(Ruchika Tomar)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예술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NON-FICTION

제목: NUKING THE MOON

가제: 황당한 비밀 작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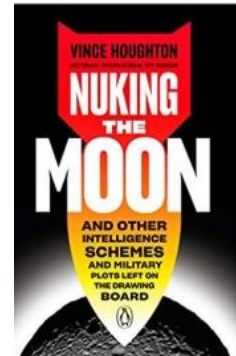
저자: Vince Houghton

출판사: Penguin Books

발행일: 2019년 5월 7일

분량: 320 페이지

장르: 교양



- * “놀라움과 폭소를 함께 유발하는 이야기들. 오늘날에도 일급 기밀이 다루어지는 기관들에서 이런 특이한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 “성공적인 기밀 작전 대부분은 정신 나간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데, 그 중 일부는 정말 너무 이상해서 결국 행정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저자는 이 책에 그런 운명을 맞은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가장 이상하며,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선사하는 이야기들을 모았다.” - 전 NSA, CIA 국장,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Playing to the Edge』의 저자 마이클 헤이든

공기보다 가벼운 초음속 비행기부터 ‘애니악’으로도 알려진 진공관 식 컴퓨터, 핵무기, 인터넷까지 혁신적이고 놀라운 기술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팽팽히 맞선 적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절박한 시도인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국제 사회를 거머쥔 힘을 경쟁국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얻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제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체제 시절, 은밀한 군사 작전과 첩보 계획을 수립하던 안보 기관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이 끝없이 이어졌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 탐사 경쟁이 ‘우주 전쟁’으로 불리는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탄생한 놀라운 아이디어들은 이후 국민의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제 스파이 박물관에서 역사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실현되지 ‘못한’ 아이디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폭탄을 싣고 날아다니는 박쥐, 독이 든 꽃을 이용한 작전,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을 섞은 시가, 특수 훈련된 고양이의 척추에 도청 기기를 삽입하는 작전에 이르기까지, 알고 보면 정말 비대한 두뇌를 가진 요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기괴한 아이디어들도 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너무 위험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혹은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 정말 미친 짓 같아서 폐기됐지만 분명 진지한 논의가 오갔고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던 작전들 중에 이처럼 너무 이상해서 놀라운 것들이 이 책에 모여 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절박함은 1년에 한 번씩 연락이 와서 이상한 소리나 하는 만취한 삼촌 같은 것”이라는 찰진 비유와 함께, 저자는 결과가 나온 역사에만 주목하는 태도를 버리고 끝을 보지 못한 과거의 일들도 열린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놓인 동기와 정황, 당시의 기술 수준을 참고할 때, 실현된 아이디어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시각과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군사 작전에 동물 친구들을 활용해보려 했던 흥미롭지만 무모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2부에서는 가장 은밀하게, 비밀리에 계획되고 진행된 첩보 작전들이 제시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비밀 거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악하고 악랄한 악당들, 이중 간첩,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비이성적이고 기이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작전들을 만날 수 있다. 3부에서는 2차 대전과 냉전 시기에 탄생한 가장 혁신적인 기술들을 소개한다. 말그대로 틀에 박힌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했던 절박함이 낳은 발명품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된 것들, ‘너무 심하게’ 혁신적이었던 결과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4부에서는 핵 무기에 주목해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와 실제 사용 사례 외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 강력한 무기가 활용될 뻔했던 사례들을 설명한다.

인류는 눈부신 발전 이룩해왔지만, 스스로를 얼마나 엄청난 수량과 파괴로 이끌 수 있는 존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독특한 역사서다.

<목차>

머리말: 설계도에만 남은 이야기

1부. 동물들의 모험

1. 소리 듣는 고양이
2. 번덕스러운 작전
3. X선 프로젝트
4. 환상곡 프로젝트
5. 파란 공작새

2부. 깜짝 놀랄만한 작전들

6. 빨래통 프로젝트
7. 노스우드 작전
8. 펠릭스와 라이플 총
9. 물개 프로젝트
10. 독점 작전

(이하 생략, 총 4부, 21장과 결론으로 구성)

<저자 소개>

빈스 호튼(Vince Houghton)은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 스파이 박물관 소속 역사가이자 큐레이터다.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SpyCat’의 감독과 진행자도 맡고 있다. 해당 팟캐스트는 매년 미국과 전 세계에서 350만 명의 청취자가 듣고 있다. 미군 출신이며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외교학, 군 역사를 공부했다.

제목 : GOOD VIBES, GOOD LIFE

가제 : 무엇보다,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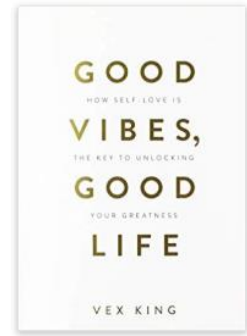
저자 : Vex King

출판사: Hay House UK

발행일: 2018년 12월 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긍정적인 에너지로 좋은 삶을 만들고자 노력한 저자의 선택들을 보여주는 멋진 결과물” - 「요가 매거진」
- * “저자는 영적인 구원을 바라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만한 대표적인 혁신가다.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책” - Soul & Spirit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은 없어도,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이다.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순간도 많지만 그 상태로 안주하다 보면 어딘가 공허한 느낌을 받게 된다. 끝없이 경쟁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피 튀기는 싸움에 뛰어들고 싶지는 않지만 대충 타협해서 머물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 땐 어떻게 해야,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이 정도면 됐다’고 할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린 시절 집 없이 수 년간 길거리를 떠돌며 살았던 기억을 안고 살아온 저자는 원치 않아도 머릿속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낼 방법이 과연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후에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까?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마음에 안 드는 과거의 내 모습과 나의 행동들이 너무나 많다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라’는 행복의 필수 요건을 따를 수 있을까? 저자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된 이 고민들을 마침내 해소하고 희망과 행복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이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와 자기계발 코칭 활동을 통해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소개해 왔다. 이 책에는 저자가 소개해온 스스로를 사랑하고 우리 개개인의 가장 위대한 면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독약처럼 몸과 마음, 정신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극복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 나에게 더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어떻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 함께 제시한다. 더불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이미 시도되고 검증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과 불필요하게 우리를 잠식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법,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왜 도와주어야 하는지와 그러한 노력에 담긴 지혜도 설명한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과도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 가장 안전할 것 같지만 더 많이 할 수 있는 내 안의 능력을 깨우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행복의 균형을 해치기 때문이다. 저자는 더 위대한 버전의 ‘나’는 오직 나만이 만들 수 있으며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자기애가 뒷받침될 때 그 길이 보이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가 전 세계를 돌며 직접 만난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들, 저자가 경험한 일들을 종합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야 삶이 바뀌고 불가능해보이는 세상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목차>

머리말 / 나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1부. 중요한 건 분위기

2부. 생활 속 긍정적인 습관

3부.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자

4부. 나 자신을 받아들이자

5부. 드러내야 하는 것: 마음이 해야 할 일

6부. 드러내야 하는 것: 실행하기

7부. 고통과 목적

<저자 소개>

벅스 킹(Vex King)은 저술가, 자기계발 코치 등으로 활동해 왔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Bon Vita’를 통해 사람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목 : EVERYBODY NEEDS BEAUTY

가제 : 어디 가면 쉴 수 있나요

저자 : Samantha Walton

출판사: Bloomsbury

발행일: 2020년 가을 예정

분량 : 약 300 페이지

장르 : 건강



*** 경매를 통해 UK 출판 계약 체결**

*** “자연을 향한 인류의 애착, 자연과 우리의 건강, 행복의 연결고리를 탐구한 책” – Bloomsbury 편집장**

꽤 막힌 도로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한 채 뿌연 매연이 자욱한 도심 풍경을 멍하니 응시할 때면 초록빛 나뭇잎과 맑은 공기가 가득한 자연이 한없이 그리워진다. 바로 다음 날 또 다시 힘든 출근길에 올라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과 공휴일이면 먼 길도 마다 않고 자연 속으로, 혹은 조금이라도 자연과 ‘비슷한’ 곳을 열심히 찾아가는 이유도 그런 갈증과 그리움 때문일 것이다. 탁 트인 바다 앞에, 혹은 울창한 나무 사이에 서 있을 때 쌓인 피로와 걱정이 서서히 흩어지는 기분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그 신기하고 즉각적인 기분 변화가 뇌과학적으로 어떤 변화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어려운 원리를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 모두가 그 엄청난 효과만큼은 알고 있다. 스트레스에 찌들어 고통스러워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최근 부쩍 더 눈에 띈다. 치열한 경쟁과 성적 향상에만 신경 쓰던 학교들이 야외 활동을 더 늘리려고 애쓰고 병원들은 좁은 부지 한 켠에 정원을 만들어서 환자들이 잠시나마 바람을 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도 자연 속에서 지친 일상을 짧게라도 잊는 시간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고, 우울증과 극심한 불안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자연으로 떠나라’는 처방전을 받아 들고 진료실을 나서는 경우도 많아졌다. 등산, 수영, 동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실제로 인간의 건강, 특히 정신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들도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다.

저자는 ‘자연 치유’로 통칭할 수 있는 이 현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큰 호기심을 갖고 조사한 결과, 인류 역사상 아주 먼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 다양한 곳에서 몸과 마음의 문제를 회복했던 흥미로운 사례들이 무수히 발견됐다고 전한다. 프랑스 루르드에서 발견된 신비한 약수, 미국 메인 주 베탈에서 수백 년 전부터 휴식의 장소로 활용되어온 야생 환경, 스코틀랜드 크렉록하트 지역에 형성된 실험 농장, 그리고 실내에서 자연의 영향을 어디까지 재현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개발 중인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인간의 건강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세계 다양한 자연을 직접 방문하고 이러한 자연 속 공간이 어떤 역사와 과학적인 원리로

지친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져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더불어 저자처럼 자연의 치유 효과에 매료되어 그 놀라운 효과를 글로 남긴 케이트 쇼팽, 존 유어, 에드워드 월슨, 조지 몬비오 등 세계 유수의 작가들의 기록에 담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고찰도 함께 소개한다.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지구 환경 속에서 인류가 자연에서 찾아낸 놀라운 치유의 효과를 정신 건강과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조사한 이 책에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 효과를 악용하는 최근의 무수한 사례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이 우리에게 대체 불가능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의미에 감탄하고 최대한 활용할 방법만 찾을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배울 것과 느낄 것이 두루 가득 담긴 의미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치유의 장소?

1. 물: 변화의 매개체
2. 산: 드높은 시각
3. 숲: 어둠과 직면하는 곳
4. 정원: 신의 약국
5. 농장: 노동의 행복
6. 공원: 자그마한 행복 기계
7. 가상 자연

맺음말: 잃어버린 곳들

<저자 소개>

사만다 월튼(Samantha Walton)은 바스 스파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원헨에 위치한 레이첼 카슨 센터와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연구한 경력이 있으며 영국 예술인문연구회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시집 『Boiler House Press』을 쓴 시인이기도 하다.

제목 : THE KILLER ACROSS THE TABLE

가제 : 내가 만난 살인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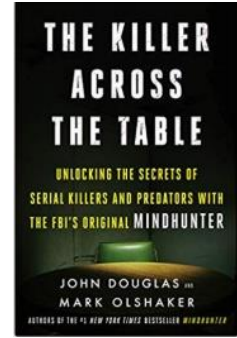
저자 : John Douglas, Mark Olshanker

출판사: Dey Street Books

발행일: 2019년 5월 7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범죄/법률



★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판매 계약

★ “저자는 다시 한 번 우리를 최악의 악몽으로 데려가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 「뉴욕 저널 오브 북스」

★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에 관한 이해를 넓혀주는 책” - 「텔레그래프」

넷플릭스 10부작 시리즈 <마인드 헌터(Mindhunter)>는 FBI에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라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처음 도입하고 이끈 한 특수 요원이 20년 전에 직접 쓴 동명의 범죄 기록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올해 두 번째 시즌이 방영될 예정인 이 인기 시리즈를 탄생시킨 원작자이자 50여 년 동안 무려 5천 건이 넘는 폭력 범죄 수사에 참여했던 저자가 다시 한 번 세상을 경악시킨 범죄 속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인자들을 무수히 만났던 그가 ‘최악의 범죄자’로 꼽은 네 명의 머릿속을 살살 파헤친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완전히 벗어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살인자들의 특성과 함께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상세한 프로파일링 기법과 철저한 전략을 바탕으로 진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FBI의 ‘전설’로 불리는 저자는 1970년대부터 서른 명이 넘는 젊은 여성들을 납치, 성폭행, 살해한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를 비롯해 여러 여성들을 자신의 필라델피아 집 지하실에 감금하고 고문한 뒤 목숨을 빼앗은 개리 하이드닉, 그리고 피부를 얻기 위해 여성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하여 히치콕의 대표적인 영화 ‘사이코’의 모델이 되기도 한 미치광이 살인자 에드 게인과 같은 잔혹한 범죄자들을 직접 만나 심문하고 연구했다.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돌며 범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온 저자는 지금까지 만난 범죄자들 가운데 가장 악마와 가깝다고 느낀, 인상적인 네 건의 범죄를 선정하여 이 책에서 소개한다. 무엇이 이들을 상상할 수도 없고 떠올리기도 싫은 흉악한 범죄로 이끌었을까? 저자는 네 명의 살인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해 수단과 동기, 그 거센 불길을 지핀 악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밝혀내기 위해 어떤 조사 기법을 활용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진공 상태처럼 느껴지는 고요한 조사실에서 초점이 뚜렷하지 않은 범죄자와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많은 면에서 최면을 거는 것과 비슷하다. 살인을 비롯한 모든 범죄는 ‘범인이 누구인가?’에 중점을 두지만 저자는 그보다 ‘왜 그런 짓을 저질렀나?’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유를 밝히고 나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게 되

면 ‘누가’ 저지른 짓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 넘는 흉악 범죄를 거리낌없이 행하는 범죄자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저자의 여러 가지 프로파일링 기법은 각종 범죄 행동을 이해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 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정된 네 명의 살인자들과 처음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장면들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재구성하면서 이들이 진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게끔 어떻게 유도했는지 보여준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몇 마디의 대화, 그리고 저자가 만난 다른 흉악 범죄자들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저자는 인간의 내면에 깃들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구석을 거침없이 뚫고 들어간다. 게임 판 없이 몇 시간, 며칠씩 이어지는 조사관과 범죄자의 정신적인 체스 게임, 혹은 신체 접촉 없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스파링이자 서로의 인내심이 바닥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상대의 약점과 불안을 집어내려고 발버둥쳐야 하는 끈질긴 싸움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목차>

커다란 집 작은 방에서 / 머리말: 전문가에게 배우다

I 양의 피

1. 사라진 어린 소녀
2. “폭 잤어요.”
3. 살인자의 마음
4. 인간의 추락
5. 사이코들이 하는 말
6. 붉은 분노와 하얀 분노
7. 핵심
8. “상당한 가능성”
9. 조앤이 남긴 것

II “나를 위한 살인은 저의 두 번째 천성이예요” (10-15장)

III 죽음의 천사 (16-20장)

IV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21-26장)

<저자 소개>

존 더글라스(John Douglas)는 전설적인 FBI 범죄 프로파일러로 25년 이상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을 낳은 범죄를 연구해왔다. 미 공군 출신이며 FBI에서 48년간 5천 건이 넘는 범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고 실력을 가진 범죄 전문가와 조사관들로 구성된 ‘Cold Case Foundation’의 대표를 맡고 있다.

마크 올셰이커(Mark Olshaker)는 에미 상 수상 경력이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저술가다. 저서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 만 권이 판매된 『Law & Disorder』와 『Einstein’s Brain』 등이 있다.

제목 : IN SEARCH OF MARY SHELLEY

가제 : 프랑켄슈타인의 창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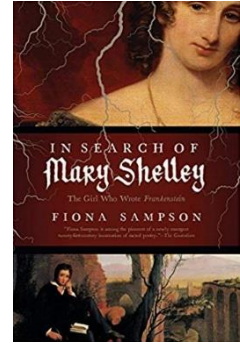
저자 : Fiona Sampson

출판사: Profile Books

발행일: 2018년 1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전기



★ “저자는 스스로 프랑켄슈타인이 된 것처럼, 아파하고 피 흘리며 살았을 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다.” – 「가디언」

★ “시대를 훌쩍 앞서간 천재 작가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과 출간 200주년을 맞이한 명작을 쓰게 된 동기가 담긴 매혹적인 이야기” – 「북리스트」

‘괴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공통적으로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다. 팔과 다리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꺾여 있고 시선도 어디를 향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얼굴, 거대한 몸집에 무거운 발을 쿵, 쿵, 천천히 옮기는 괴물의 이미지가 맨 처음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따라 올라가다보면 최초의 SF 소설로 불리는 ‘프랑켄슈타인’에 도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뮤지컬로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을 만큼 세계적인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이 소설이 출간 20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킨 작가 메리 셸리에 관한 전기가 출간되었다. 시인이자 작가로 활동해온 저자가 메리 셸리의 일생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한 이유는 명확하다.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 퍼시 셸리의 아내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바이런 사이에서 ‘어쩌다 우연히’ 희대의 대작을 탄생시킨 작가 정도로 알려진 메리 셸리의 천재적인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살펴보고, 무엇보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창의력의 산물이 ‘왜’ 탄생했는지 찾는 것이다. 괴물의 존재는 바이런의 권유로, 혹은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닌 독자적인 문학적 힘과 주체성이 뚜렷했던 한 소설가의 고달팠던 삶과 생명, 죽음에 관한 뼈아픈 통찰로 탄생한 문화적 상상력의 산물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들이 당시 메리 셸리가 남긴 편지와 일기 등을 통해 소개된다.

엄마는 태어나서 며칠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부친 윌리엄 고드윈의 손에서 자란 메리 셸리는 당시 영국의 앞서가는 정치 철학자였던 아버지 덕에 수준 높은 인문학 교육을 충분히 받으며 깊이 사유하는 기술을 일찍부터 깨우쳤다. 무정부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였던 부친은 뜻이 맞는 사상가들과 시인들, 철학자들, 작가들을 쉴 새 없이 집에 초대했고 메리 셸리는 자연스레 이들과 어울리며 자랐다. 열여섯 살에 퍼시 셸리의 제자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한 몸으로 그와 유럽으로 사랑의 도피를 떠났을 때 서로의 넘치는 재능을 북돋아주던 부부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돈 문제와 힘들게 낳은 소중한 네 아이 중 세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상실이 찾아왔고 ‘자유로운 사랑’을 이상으로 삼은 남편의 외도 역시 메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저자는 제네바 호수 근처 별장에서 바이런 경과 한 동안 함께 지내던 때, 메

리 셸리가 채 20대도 되지 않았을 때 형체가 잡히기 시작한 ‘프랑켄슈타인’은 기괴한 괴물의 모습보다 ‘실존에 관한 의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려면 삶의 심리학적인 측면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던 메리와 동시대 지식인들의 생각들과 괴물을 탄생시킨 메리 셸리의 격변 가득한 삶에 주목해야 한다. 저자는 메리의 소설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이 만든 괴물을 쫓아 북극으로 향하는 과정처럼 지금까지 거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메리 셸리의 인생을 좇아간다. 어째서 열아홉 살밖에 안된 신예 작가의 펜 끝에서 이토록 어둡고, 미스터리하고, 분노로 가득한 소설이 나왔는지,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어떤 심리학적 요소가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무수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지, 저자는 그 답을 찾아서 떠난 여정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메리 셸리가 남긴 기록에 의존하면서도 소실된 자료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긴 틈은 저자의 적극적인 추정으로 메워지지만, 그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지기보다 비상했던 작가이자 불행했고 평범하지 않았던 한 여성의 삶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목차>

머리말

1부. 생명의 수단

1. 생명의 수단
2. 보는 법을 배우다
3. 반쯤 열린 문 틈으로
4. 사랑의 도피
5. 부부가 되다
6. 디오다티 빌라에서
7. 젊은 작가
8. 이민

2부. 파도에 휩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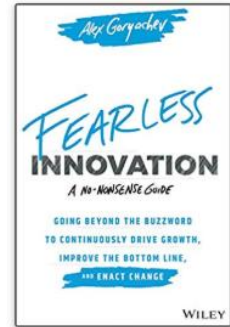
9. Le rêve est fini (꿈은 끝났다)
10. 모나리자의 미소

맺음말

<저자 소개>

피오나 샘슨(Fiona Sampson)은 수상 경력이 있는 시인이자 작가로 대영제국 문학 훈장을 받았다. T. S. 엘리엇 상 결승 후보에 두 차례 올랐으며 포워드 상(Forward Prize) 상 후보로도 선정된 적이 있다. 번역가, 대학 교수, 바이올린 연주자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FEARLESS INNOVATION
가제 : 혁신적이어야 혁신을 하지요
저자 : Alex Goryachev
출판사: Wiley
발행일: 2020년 1월 2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경영



*** 시스코 혁신 전략가인 저자가 소개하는 실질적인 혁신의 기술 - 말로만 그치지 않고 회사의 꾸준한 성장의 바탕이 될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안내서**

혁신도 그동안 무수히 왔다가 사라진 유행 트렌드 중 하나일까? ‘혁신’이라는 표현만 들어가면 뭔가 있어 보이는 번지르르한 마케팅 전략일 뿐이니, 너무 진지하게 혁신을 추구하는 건 어리석은 낭비일까? 20년 이상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컨설턴트로 업체들의 그러한 노력을 지원해온 저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산업혁명이 네 번째 흐름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지는 지금, 정신없는 변화의 속도와 수준, 강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변화이다. ‘혁신’은 이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혁신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업체는 거의 없는 반면 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변화가 가능한지 제대로 아는 기업 역시 거의 없는 모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중 63 퍼센트가 혁신 전문가를 채용했고 무려 90 퍼센트 이상이 혁신이 도움이 될 만한 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이 단어는 두려움과 불안감부터 발생시킬까? 저자는 대부분의 리더들이 압박감에 못 이겨 혁신을 입에 올리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저자는 너무 과도한 정보와 소문들 때문에 진정한 의미가 흐려진 혁신의 알맹이를 찾고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잡음 속에서 실질적이고 유익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괜찮은 아이디어로 이제 막 문을 연 스타트업부터 다국적 기업은 물론 비영리단체, 학계 기관, 지역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생존한다 해도 더 발전하거나 번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주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료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미 혁신을 이룩한 조직들과 혁신의 성공적인 사례들, 그리고 기업 혁신가로서 저자가 직접 발로 뛰며 익힌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녹여내어 이 혼잡한 정보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알짜배기 원칙을 단계적으로 소개한다. 혁신이 허울뿐인 플래카드와 그저 각종 보고서에 글자로만 찍힌 개념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직 전 단계 구성원의 사고방식부터 바뀌도록 이끌 것, 리더십과 현실적인 전략으로 혁신이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실현 되어야만 하는 목표임을 보여줄 것, 혁신의 실제 성과를 측정하고 명시하여 투자를 끌어 모을 것,

전통적인 조직 구성만 고집하지 말고 변화를 보다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과감히 다시 구성할 것, 도움이 될 만한 파트너들과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는 윈-윈 시스템을 구축할 것, 대형 조직의 가장 작은 팀에서부터 혁신이 일상이 되고 업무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는 문화를 만들 것, 무작정 경쟁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귀찮게만 여겨질 수 있는 혁신이 왜 필수적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 등 산업 분야나 규모와 상관없이 혁신의 뿌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알찬 정보들이 가득하다. 괜한 두려움을 버리고 사업에 가장 필요한 변화의 힘을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도와주는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유행어가 아닌 현실로 만들어라

1장. 혁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2장. 리더십 결핍 = 전략 결핍 = 혁신 실패

3장. 가능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도 없다

4장. 혁신은 파괴가 아니다

5장. 혁신가는 외롭다는 오해

6장. 혁신은 자유로워야 한다

7장. 결과는 반드시 체계적이어야 한다

8장. 소통, 소통, 그리고 소통

결론. 평상시와 같은 비즈니스

<저자 소개>

알렉스 고리야체프(Alex Goryachev)는 20여 년간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만드는 일을 해왔다. 2004년부터 시스코에 합류해 현재 혁신전략프로그램 선임 총괄을 맡고 있다. IBM 글로벌 서비스, 화이자 제약 등에서도 컨설턴트로 일했다.